

-(-으)ㄴ/는 듯이

~인 듯이 — 마치 ~인 것처럼

어떤 행동을 다른 것에 빗대어 그 방식을 묘사합니다. 듯은 -(-으)ㄴ/는 듯하다와 같지만, 주장을 완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꾸며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듯이	알다 → 아는 듯이
형용사	-(-으)ㄴ 듯이	기쁘다 → 기쁜 듯이
완료된 행동	-(-으)ㄴ 듯이	들은 듯이
굳어진 비유	어간 + 듯이	물 쓰듯이
이 생략 가능	-(-으)ㄴ/는 듯	아는 듯 말했다
주장을 완곡하게 할 때	-(-으)ㄴ/는 듯하다	비가 오는 듯하다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사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듯이, 형용사와 완료된 행동은 -(-으)ㄴ 듯이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: 아는 듯 말했다.

뒤에 오는 동사의 방식을 꾸밉니다: 그는 모든 걸 아는 듯이 말했다 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는 뜻입니다. 빗댄 내용은 보통 사실이 아닙니다.

어간에 바로 붙는 형태 -듯이는 굳어진 비유나 속담에 나타납니다: 물 쓰듯이 (물을 쓰듯 험하게), 밥 먹듯이 (밥 먹듯 늘), 불 보듯 뻔하다.

두 가지 듯 구문을 구별하세요. 듯이는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, 듯하다는 무엇이 그런 것 같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모든 걸 아는 듯이 말했어요.
- 2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웃고 있었다.
- 3 몹시 기쁜 듯이 손뼉을 쳤어요.
- 4 그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써요.
- 5 직접 만드는 듯이 정성을 들였습니다.
- 6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.

■ 비교

-(-으)ㄴ/는 듯하다
뜻은 같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 듯이는 행동하는 방식을 꾸미고, 듯하다는 무엇이 그런지를 완곡하게 말합니다.
아는 듯이 말했다. (아는 것처럼 말함) / 아는 듯하다. (아는 것 같음)

-(-으)ㄴ/는 것처럼
의미가 거의 같고 말에서 더 흔히 씁니다. 듯이가 조금 더 문어적입니다.
아는 것처럼 말했어요. (구어) / 아는 듯이 말했다. (문어)

-다시피
-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기대는 말이고, 듯이는 보통 사실이 아닌 것에 빗대는 말입니다.
아시다시피 (아시는 바와 같이) / 아는 듯이 (아는 것처럼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드는 듯이 정성을 들였습니다.
○ 직접 만드는 듯이 정성을 들였습니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비가 오는 듯이 하늘이 어둡다.
○ 비가 오는 듯이 어두운 하늘이었다.
듯이는 동사의 방식을 꾸밉니다. 무엇이 그런 것 같다고 말하려면 듯하다는 씁니다.
- ✗ 그 사람은 돈을 물 쓰는 듯이 써요.
○ 그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써요.
굳어진 비유에서는 어간에 바로 붙습니다: 물 쓰듯이, 밥 먹듯이, 불 보듯.